“여성 독립투사 헌신 평생토록 기억”

부산 마하사서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

8월 12일 천도재 · 평화콘서트
아랫녘수륙재보존회 의식 집전
13일엔 거리탈굿마당 · 마당극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 있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종군 위안부들이시여, 여성 독립투사들이시여, 당신들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희생당한 위안부와 여성 독립군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2023 아시아 생명평화 문예축전’이 8월 12일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원혼을 천도하고 위로함과 동시에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 가운데 첫 번째 무대가 된 마하사에서는 ‘천도재와 평화콘서트’가 열렸으며, 무차공양을 진행해 영가를 위로하고 희생된 위안부와 독립투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도재는 (사)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보존회가 담당했으며 이어 생명평화콘서트가 펼쳐졌다.

생명평화콘서트는 먼저 승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춤 회심바라승무가 무대를 장식했다. 또한 천지만물 삼라만상 생명의 어머니 ’ 마고할매 ‘의 활갯짓을 상징하는 마고춤이 이어졌으며, 마하사합창단이 부르는 ’ 비목 ‘과 ’ 천개의 바람이 되어 ‘가 울려 퍼졌다. 콘서트는 동래지사춤과 노래 공연 등으로 마무리하며 독립투사와 위안부의 헌신을 기렸다.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이 8월 12일 부산 마하사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사)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보존회가 집전한 천도재.

공동대회장 정산 스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와 약산 김원봉 열사의 부인인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독립군 박차성 열사를 비롯해 권애라, 김마리아, 강주룡, 김옥련, 김명시, 조신성 등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셨다”며 “오늘날 우리들이 그분들의 성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심정”이라 말했다.

스님은 이어 “곱디 고운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때로는 일본의 기망과 탐욕, 야욕으로 희생되신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애달픔은 반세기 넘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라며 앞서 가신 분들의 그 넋이 해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은 ‘스무 번째 일본군위안부 해원상생굿’과 ‘여성독립군 신명천지한마당’으로 진행됐다. 마하사 행사 이후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마당극 ‘세 소녀-진달래꽃길과 벚꽃유람선’ ‘세 소녀와 김복동 할매’, 현신 초망자굿이 진행됐다. 8월 13일에는 민주공원 일원에서 거리탈굿마당을 시작으로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시와 악가무극, 마당극 ‘소녀상 일어서다’ 등이 펼쳐졌다.

“교직 생활에 위로”…마음자리 찾는 직무연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현직교사 20명 대상으로
‘마음이 웃는 교실’ 진행

“주먹다짐을 하는 반 아이들로 인해 교사가 된 걸 후회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응원과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힘을 얻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00 교사

“이번 연수의 모든 과정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 교실에 온 아이들도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과의 2학기 시작이 걱정이었는데 보다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00 교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8월 8일부터 1박2일간 경내에서 개최한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마음이 웃는 교실’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의 소감이다. 교사들을 향한 학부모의 갑질 민원 등으로 사회문제가 커지는 요즘, 불교적 관점으로 서로의 고충을 돌아보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직접 기획한 자리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8월 8일부터 1박2일간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마음이 웃는 교실’을 진행했다.

‘마음이 웃는 교실’에선 “교직 생활 30년 동안 받은 연수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평생 잊지 못할 연수”라는 현직교사 20명의 긍정적인 소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마음선원을 창건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토대로, 교사들의 마음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직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번 연수를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

대행선사는 생전 대중에게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그 어떤 생각이 나오든, 내 근본 마음자리에서 들고나는 줄 안다면, 허허 웃으며 나온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고 설법했다.

이번 연수는 모든 것이 나오는 ‘거기’ 즉 ‘내면의 지혜로운 나’를 알아가고, 내면의 나와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산지원 신도 중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스님, 교사, 한의사, 교수, 무용가 등 분야는 다르지만, 마음 작용과 마음의 묘미를 직접 체득해온 강사진들의 강의는 ‘마음이 웃는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일차 오전, 내 마음을 마주하는 ‘웃는 마음-내 마음 똑! 똑!’,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몸은 마음을 따라야’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소통과 리더십을 알아보는 ‘마음과 리더십’에 이어 ‘몸은 쉬고 마음은 열고’를 통해 공감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2일차 프로그램 ‘마음 소통으로 행복한 교실’에서는 보다 생생한 교실 현장의 사례들이 전해져 호응을 얻었다. 연수의 끝을 장식했던 ‘힐링공감 Talk’은 한마음선다회에서 준비한 정갈하고 멋스러운 찻자리로 감탄을 자아냈다. 교사들은 향긋한 차를 음미하며 연수에서 변화된 마음들을 나누며 함께 소통하고 공감했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대행 스님께서는 사람을 다루는 의사, 판사, 교사는 반드시 이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며 “특히 교사는 생명을 품어 길러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법사 혜벽 스님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지혜로운 나’가 있으니 수업 전에 잠시라도 학생들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챙기면, 교사는 학생을,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삼광사, 신나는 어린이여름문화캠프

다양한 직업 체험도 제공

삼광사(주지 영제)가 8월 12~13일 경내에서 어린이 여름 문화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캠프는 물놀이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꿈을 찾기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삼광사 어린이여름문화캠프에는 어린이 1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입교식을 비롯해 6개 조로 나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어린이들은 유튜브 영상제작, 마술사, 댄서에 도전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직업을 경험했으며, 스님들과 함께하는 발우공양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삼광사는 VR체험, 공예미술, 응급구조체험, 미술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엄수빈(수미초6) 양은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주지스님과 선생님 모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회향식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씩씩해진 것 같다”며 “항상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린이 위한 물놀이 야단법석

율하선원, 포교 문턱 낮춰

김해 율하선원(주지 석산)이 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물놀이 장으로 변신했다. 율하선원은 8월 13일 경내에서 ‘어린이 물놀이 야단법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놀며 불교와 친근할 수 있도록 돕고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로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도들은 율하선원을 찾은 어린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떡볶이, 피자, 샤인머스캣 등 간식을 준비해 풍성함을 더했으며, 주지 석산 스님과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등 봉사자들은 어린이들과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놀이 현장에는 어린이 100여 명과 부모 200여 명 등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박상현(율하초5) 군은 “물놀이하는 스님이 개구쟁이 꼬마 같고 너무 신기했다”며 “맛있는 간식을 주셔서 더 신이 났고 즐거운 하루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산 스님은 “선원에서 뛰어 놀며 좋은 추억을 갖는 것이 포교의 첫 걸음”이라며 “힘들 때 누구나 선원을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광명사, 환경 위한 ‘녹색사찰’ 동참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가 녹색사찰로 등록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사진〉



대광명사와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는 8월 12일 대광명사 대웅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을 체결했다. 대광명사는 앞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등 친환경 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하며, 특별 후원금을 전달했다.

주지 목종 스님은 “협약식 이후로 사찰 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 줄이기 운동을 실천해 달라”고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안도 스님은 “대광명사와 함께 협약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불자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 컵, 일회용 비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등을 실천한다면 환경 보살행이 모여 녹색의 불국토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